



보 도 자 료

책임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3775-9033)
작성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3775-9033)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보도 2021. 10. 21(목) 조간부터
배포 2021. 10. 20(수)
매수 총 4매

보험연구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CEO Report 발간

**“요양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은 증가하고 있는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조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 (요양시장 전망) 2020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 7천 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 5.8%)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임

<표 1> 연도별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5세 이상 인구(A)	6,193	6,463	6,775	6,996	7,356	7,650	8,027	8,496
노인인구 증가율		(4.4)	(4.8)	(3.3)	(5.2)	(4.0)	(4.9)	(5.8)
급여이용 수급자(B)	400	434	475	520	579	649	732	807
수급자 증가율		(8.5)	(9.4)	(9.5)	(11.3)	(12.1)	(12.9)	(10.2)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B/A)	6.5	(6.7)	(7.0)	(7.4)	(7.9)	(8.5)	(9.1)	(9.5)

자료: 연령별·자격별·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kosis.kr); 행정안전부(mois.go.kr)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참고함

○ (현 요양서비스의 특징)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고, 시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공부문의 확대는 한계가 있음

-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

<표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생활 방식

(단위: 명, %)

빈도	동거 가족의 도움 받음	비동거 자녀나 주변 도움 받음	아무 도움 없이 지냄	기타	계
842	39.1	26.1	34.7	0.1	100.0

주: 비수급자는 '수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으로, 여기서는 수급자 중에서 수급경험자(수급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비수급자)와 필요자만 포함됨

-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특히 동거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 설문조사 대상자는 보험회사가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보험회사가 제공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봄
-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표 3> 보험회사의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사업 적절성 <표 4> 보험회사가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

(단위: %, 점)				(단위: %, 점)			
구분	전체	수급대상자	일반국민	구분	전체	수급대상자	일반국민
적절	71.10	72.60	68.60	있음	69	72.4	63.3
비적절	28.90	27.40	31.40	없음	31	27.6	36.7
4점 평균	2.74	2.77	2.69	4점 평균	2.75	2.81	2.64

주: 4점 평균은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를 각각 1~4점으로 하여 산출함

주: 4점 평균은 '매우 의향이 많다', '약간 의향이 있는 편이다', '별로 의향이 없는 편이다', '전혀 의향이 없다'를 각각 1~4점으로 하여 산출함

○ (보험산업의 대응)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미래에는 요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가칭)은 '직장에서 본인의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 제도를 두고 해당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해당 기업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함

○ (정책 과제)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됨

- **수요 측면의 제약**으로는 요양과 의료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영역이 모호하고, 간병인식은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가족 부양에 의존함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음
-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함
- 이에 요양시장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원활한 요양서비스 공급이 되도록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됨

첨부: CEO Report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